

##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2월 4주 차

2026. 2. 26.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각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2월 4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 화제의 최신 영화 단 3일 간 특별하게!

놓칠 수 없는 최신 개봉작 관람 기회!

쿠팡플레이에서 화제의 로맨스 영화를 파격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 가장 초라했던 그때, 가장 눈부시던 우리

새로 올라온 작품

▶ coupang play

구교환 X 문가영

현실 공감 연애

# 만약에 우리

최신 영화 파격 혜택 0원 특가

2월 27일 (금) - 3월 1일 (일)

겨울을 멜로 열풍으로 물들인 화제작 <만약에 우리>.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은호(구교환)'와 '정원(문가영)'. 뜻밖의 인연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가까워지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한다. 가난하지만 함께라서 행복했던 20대의 시간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각자의 꿈 앞에서 결국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후, 호치민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마주한 '은호'와 '정원'. 2008년의 풋풋했던 사랑과 2024년의 현재가 교차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관계의 의미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뜨겁게 사랑했던 두 남녀가 시간의 간극을 지나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 현실 공감 로맨스 <만약에 우리>는 2월 27일(금)부터 3일간, 쿠팡플레이가 준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제목 만약에 우리

장르 로맨스

감독 김도영

출연 문가영, 구교환

공개 2025

['만약에 우리'](#)

## 지금 가장 HOT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콘텐츠

웃음이 폭주하는 치키타카 토크쇼부터 유럽 무대를 향한 치열한 서바이벌까지!  
요즘 가장 뜨거운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 대한민국 최고 스타들의 예능력을 폭주시킨 요란한 치킨집

새로 올라온 작품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취미에 진심, 치킨에 덕심인 수지, 이랑, 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서 펼쳐지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 <자매치킨>. 매주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요란하고도 기분 좋은 수다로 매회 공개 직후 화제를 모으며 주말 대표 화제작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월 21일(토) 공개된 2화에서는 <세이렌>의 박민영과 위하준이 '경찰과 도둑' 동호회 멤버로 합류해 270도 몸 비틀기 플러팅부터 채도복싱, 암바, 백초크까지 역대급 개인기와 과몰입 상황극을 쏟아냈다. 여기에 권혁수가 동호회 회장으로 등장해 치킨집을 '경도 분쟁 조정 위원회'로 바꿔놓고, 김규원이 '난이도 최상 손님'으로 난입하며 웃픈 반전까지 더해져 웃음 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2월 28일(토) 공개되는 3화에는 '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멤버로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의 주역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이 총출동한다. 부동산 임장부터 굿즈 탐방까지 '발품' 하나로 뭉친 이들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토크 열기를 끌어올리고, 거침없는 멘트와 수위 조절 없는 리얼 토크가 이어지며 과몰입 세계관의 정점을 찍는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가장 요란한 치킨집 영업은 계속된다.





제목 자매치킨

장르 예능

연출 옹석인, 백인애

작가 임채윤, 김유리, 이주연, 서상희

출연 이수지, 정이랑, 김민

공개 2월 1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자매치킨'](#)

### 운명을 가를 '한일전', 살아남을 이름은 누구인가

새로 올라온 작품

누구나 무료 시청 가능



유럽 무대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축구 유망주들이 치열한 서바이벌에 도전하는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 이영표 감독과 월드클래스 멘토 가레스 베일, 조원희·김영광 코치진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전반전'을 통과해야만 영국에서 펼쳐질 '후반전' 무대에 설 수 있다. 실력 탐색전을 거쳐 브라질 파우메이라스 유소년 팀과의 첫 평가전에서 '베스트 11'이 선발됐고, 이어진 두 번째 테스트 'DISTRICT 3'를 통해 첫 탈락자가 결정됐다. 오는 2월 27일(금) 공개되는 6화에서는 자체 평가전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살아남은 18인이 국내 전반전의 마지막 관문인 운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영국 '후반전'으로 향할 자격을 결정지을 승부의 순간에서, 유망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한 판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다. 반환점을 돌며 후반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남긴 <넥스트 레전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제목 넥스트 레전드

장르 예능

연출 채재진

작가 김동찬, 박원우

출연 이영표, 가레스 베일

공개 1월 30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넥스트 레전드'](#)

## 대배우들의 클래스가 다른 명연기! 소니픽처스 화제작 3선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완성한 강렬한 몰입감의 소니픽처스 작품을 엄선했습니다!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화제의 소니픽처스 작품을 만나보세요.

## 아만다 사이프리의 고독한 싸움



© 2025 Sony Pictures Television Inc. and Universal Content Productions LLC. All Rights Reserved.

리즈 무어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서스펜스 스릴러 시리즈 <길고 빛나는 강>. 아편성 진통제로 무너진 필라델피아 켈링턴을 순찰하는 경찰 ‘미키(아만다 사이프리트)’는 어느 날 동네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되는 연쇄 사건을 마주한다. 동시에 실종된 중독자 여동생의 소식까지 끊기자, ‘미키’는 두 사건이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져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수사망을 좁혀갈수록 그녀가 애써 봉인해온 가족의 과거와 공동체를 쪼먹는 현실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며,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감정을 절제한 채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는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미키’의 내면을 단단하게 붙든다. 차갑게 밀어붙이는 범죄 미스터리 위로, 무너진 공동체와 가족의 상처를 현실적으로 비추는 묵직한 범죄 드라마를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즐겨보자.

제목 길고 빛나는 강

장르 스릴러

감독 아만다 루이스, 러셀 로스버그, 아만다 사이프리트, 파분 세티, 닐 H 모리츠, 리즈 무어, 니키 토스카노, 에이미 파스칼

출연 켈럼 빈슨, 존 도먼, 아만다 사이프리트, 니콜라스 핀녹, 애쉬리 커밍스

공개 2025

[‘길고 빛나는 강’](#)

## 전쟁이 빼앗지 못한 단 하나의 이름



© 2024 Curio Pictures Pty Ltd and Screen Australia.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사랑과 생존을 기록한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전쟁 전,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에이미(오데사 영)’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낀 ‘도리고 에반스(제이콥 엘로디)’. 그러나 그녀가 삼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금지된 감정 위에 위태롭게 놓인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사랑은, 결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극한의 잔혹함과 생사의 경계에서 ‘도리고’를 버티게 하는 건 오직 기억 속 한 사람뿐이다. 전쟁 전과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이후의 시간을 교차하며 펼쳐지는 이 서사는 한 남자의 생애를 관통한 사랑의 흔적을 집요하게 따라간다. 제이콥 엘로디는 이상과 욕망, 죄책감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도리고’의 복합적인 내면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전쟁 드라마를 넘어선 감정 서사를 완성한다. 2014년 맨부커상 수상 작가 리처드 플러너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잔혹한 시대 속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담아낸 묵직한 전쟁 멜로드라마다.

제목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장르 로맨스

감독 조 포터

출연 제이콥 엘로디, 오데사 영, 올리비아 데중, 사이먼 베이커, 시아란 힌즈

공개 2025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 한물간 스타의 집에, 그날 밤 누군가 찾아왔다



© 2019 Visiona Romantica, Inc. All Rights Reserved.

1969년 할리우드, 왕년의 액션 스타 '릭 달튼(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과 오랜 시간 그의 스텐트를 맡아온 단짝 '클리프 부스(브래드 피트)'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 앞에서 방황한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릭'의 옆집에 감독 '로만 폴란스키(라팔 자비에루카)'와 배우 '샤론 테이트(마고 로비)'가 이사 오고, '릭'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그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형편상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게 된 '릭'과 '클리프'는 '릭'의 집에서 낯술을 기울인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독보적인 연출 기법을 선보여온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1969년 미국을 뒤흔든 '샤론 테이트 사건'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구성해, 격변의 시기를 지나던 할리우드의 풍경과 인물들을 그려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불안과 자존심이 뒤섞인 연기와 브래드 피트의 여유로운 존재감이 맞물리며 묵직한 인상을 남긴다. 제92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브래드 피트) 수상을 비롯해 주요 시상식을 휩쓴 작품을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자.

제목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장르 범죄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출연 마고 로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공개 2019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 조선 왕조를 엿보다! 화제의 영화 3선

왕의 얼굴을 읽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왕을 웃게 만들었던 사람들.

조선의 궁 안팎에서 벌어진 권력의 소용돌이와 인간의 욕망을 그린 화제의 사극을 모았습니다.

사주 위에 관상이 있고, 관상 위에 눈치가 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송강호)'. 산속에 칩거하던 그는 기생 '연홍(김혜수)'의 제안으로 한양에 입성하고, 관상 하나로 한양 바닥을 뒤흔드는 인물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곧 그를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으로 이끈다. 사헌부의 수장 '김중서(백윤식)'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간 '내경'은, 조용히 때를 노리는 '수양대군(이정재)'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낸다. <관상>은 실존 사건인 계유정난 위에 관상가라는 허구를 더한 팩션 사극이다. 송강호의 묵직한 중심, 이정재가 새롭게 빚어낸 카리스마 넘치는 수양대군, 조정석의 재기발랄한 감초 연기까지 화려한 캐스팅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야기의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제목 관상

장르 드라마

감독 한재림

출연 백윤식, 송강호, 이정재, 이종석

공개 2013

['관상'](#)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소!



왕위계승 정통성 논란을 안고 재위 기간 내내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야 했던 '영조(송강호)'. 그는 뒤늦게 얻은 아들 '사도(유아인)'만큼은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세자로 키우고자 한다. 그러나 총명했던 어린 시절의 기대와 달리 예술과 무예에 더 큰 재능을 보이고 자유로운 기질을 지닌 '사도'는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 속에서 점차 무너져간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과, 왕으로서 흔들릴 수 없었던 아버지의 기대는 결국 서로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는다. <사도>는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을 권력의 기록이 아닌 '가족의 감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와 단 한 순간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의 엇갈린 진심을 밀도 있게 따라가며 목직한 울림을 남긴다.

제목 사도  
장르 드라마  
감독 이준익  
출연 송강호, 유아인  
공개 2015

## ['사도'](#)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조선 연산조, 남사당패의 광대 '장생(감우성)'과 그의 벗이자 동료 '공길(이준기)'은 더 큰 놀이판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온다. 두 사람은 연산군(정진영)과 그의 애첩 '녹수(강성연)'를 풍자하는 놀이판으로 한양의 명물이 되지만, 왕을 희롱한 죄로 의금부에 끌려간다. 위기의 순간, '공길'의 기지로 연산을 웃게 만드는 데 성공한 광대들은 궁 안 '희락원'에 머물게 되고, 왕 앞에서 권력을 풍자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광대의 웃음은 곧 궁 안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와 맞닿는다. 왕의 총애와 질투, 정치적 음모가 뒤얽히면서 '장생'과 '공길'은 점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감우성의 거침없는 '장생', 이준기의 섬세한 '공길', 그리고 광기와 고독을 오가는 정진영의 '연산'까지 인물 간의 긴장감이 이야기를 이끈다. 권력과 욕망 한가운데 선 광대들의 이야기를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자.

제목 왕의 남자  
장르 드라마  
감독 이준익  
출연 정진영, 감우성, 이준기  
공개 2005

## ['왕의 남자'](#)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